

Issue Comment

2025. 7. 14

엘앤에프 066970

선제적 LFP 공급망 대응

이차전지/석유화학

Analyst 노우호

02. 6454-4867

wooho.rho@meritz.co.kr

엘앤에프의 LFP 사업 구체화

전주 엘앤에프는 LFP 사업 자회사 설립(가칭, 엘앤에프엘에프피)을 최종 확정함. 엘앤에프는 자회사에 2천억원 출자(지분율 100%), 총 투자금액 3,365억원. 2026년 하반기 LFP 양극재 설비가 가동될 예정(초기 3만톤, 향후 6만톤으로 확대)

엘앤에프의 고객사 다변화 노력은 현재 진행형. 동사는 LFP 사업 고객사로 지난 5월 국내 배터리 셀 제조사와 MOU 체결 이후, 7월 SK On과 북미 ESS사업에 LFP 양극재 공급 MOU 체결 소식을 공개. 기존 하이니켈 사업과 특정 고객사에 편중된 고객선은 향후 LFP 사업 개시와 함께 제품/고객사 Mix 다변화

선제적 LFP 사업 대응의 긍정론

한국 배터리 공급망 기업들의 LFP 진입은 기회요인이 보다 클 수 있음. LFP 분야에 사업개시를 선언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해외 경쟁사들 대비 후발주자임은 분명. LFP 공급망 구축 및 가격 경쟁력 분야 경쟁력 열위 분명. 그럼에도 해당 사업에 낙관적 전망이 가능한 배경은 (1) 미국의 대중국 관세 정책: 기존 미국 내 ESS분야는 CATL 중심의 중국산 LFP가 주도, 신규 개정된 IRA 정책 탈중국화 요구 강화(ITC 및 FEOC)에 미국 소재 Non-China LFP 사업자 필요, (2) 북미 완성차들의 LFP 배터리 선호 현상 지속: Tesla(EV/ESS분야 LFP 탑재) 외 전통 완성차(GM, Ford, Stellantis 등)들은 LFP를 탑재한 저가 차량 출시 계획. 참고로 LG에너지솔루션 역시 미국 LFP 배터리 사업 강화 중: 미시건 및 애리조나의 ESS 사업과 27년 GM Bolt향 LFP 배터리 탑재 계획

제적 LFP 사업 대응의 긍정론

엘앤에프의 LFP 양극재 사업계획이 고객사향 100% 출하를 가정 시, 3만톤 기준 매출액 2,690억원, 6만톤 기준 매출액 5,380억원을 추정(25.7월 현재 원/달러 환율 가정). 동사의 예상 판매단가는 2024년 연말 기준 중국의 LFP 양극재 평균단가 대비 약 +25% 높은 수준이나, 중국산 미국 관세 영향 등을 고려하면 상쇄 가능

기업가치 변화

2026년 동사의 LFP 양극재 고객사향 양산일정은 국내 양극재 기업들 대비 빠른 편. 업황 둔화에 따른 동사의 수익성 부진 장기화 흐름 속 해당 발표가 전주 동사 주가에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

분기별 지속되는 영업적자 우려는 기업가치에 Discount 요인. 그럼에도 긍정변수(추세적 영업실적 턴어라운드, 이를 통한 재무 건전성 개선)가 현실화될 수 있다면 중장기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한 기업

그림1 엘앤에프의 LFP 투자 공시

13.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	-본 공시는 LFP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설립 및 자본 취득의 건임, 중국 외 최초의 LFP 사업 법인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중저가EV 및 에너지저장장치(ESS) 수요 대응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. -상기 '1. 발행회사'의 회사명은 변동될 수 있으며, 대표자는 미정으로 기재를 생략함. 향후 확정되는 시점에 정정 예정임. -상기 '1. 발행회사'는 설립 전으로 자본금(원) 및 발행주식총수(주)와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 상황은 해당 사항 없음. -상기 '2. 취득내역'의 취득 금액은 총 취득 금액을 말하며, 상기 '6. 취득 예정 일자'는 투자 최종 종료 예정일로 해당 기간까지 분할하여 출자 예정임. -상기 '6. 취득 예정 일자'는 발행회사와의 협의, 관계기관의 승인 등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 -상기 '2. 취득내역'의 자기자본 및 '7.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'의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(원)은 2024년 12월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. -본 건과 관련된 세부 사항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. ※관련공시
	-

자료: 전자공시시스템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